

# 포항, 신·재생 에너지 메카 부상

## 수소연료전지·부품소재 집적 ... 포스텍·RIST와 전문인력 양성도

포항에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할 수소연료전지 집적단지과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전문기업단지가 조성된다.

그린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환호해맞이공원 일대에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포스텍(포항공과대), RIST(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9월8일 종합개발계획 수립 보고회를 갖고 2010년 이후 포항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신·재생 에너지 메카로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포스코의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이 있는 영일만항 배후산업단지 100여만㎡ 부지에 수소연료전지 집적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과 지식 경제자유구역내에 수소·및 신·재생 에너지 복합발전단지과 수소 시범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영일만항 산업단지과 포항블루벨리에 신·재생 에너지 부품소재 전문기업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그린도시를 육성하기 위해 환호해맞이공원과 해도근린공원 일대에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 체험단지를 갖춘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에 국립 탄소배출권거래소와 기후변화연구소도 유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포스텍, RIST와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에너지원 이용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보면과 죽장면에 풍력발전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2009년 말까지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억원을 들여 타당성조사 및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08>